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지하수댐·스마트팜 현장 안전 점검

입력: 2025.10.28 14:32 / 수정: 2025.10.28 14:32

옥성 지하수댐 운영 실태·이인면 스마트팜 마무리 공사 집중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가 27일 충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공주시 이인면 스마트팜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 펼치고 있다. /공주시사

[더팩트 | 공주=김형중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가 전날 충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공주시 우성면 옥성 지하수댐과 이인면 스마트팜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요 농업 기반시설의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준공을 앞둔 스마트팜 시설의 시공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 관계자들은 먼저 우성면 옥성 지하수댐을 방문해 운영 실태와 지하수 확보량을 살폈다.

옥성 지하수댐은 지하수를 저장해 필요 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최근 가뭄이 잦아지는 기후 변화 속에서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 방문한 이인면 스마트팜 조성사업 현장은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현장에서는 온도·습도 자동 제어시스템과 관수·관비 자동화 설비 등 첨단 스마트농업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공사 측은 시공 상태와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민수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은 "옥성 지하수댐은 지역 농업용수 확보의 중추 시설로 스마트팜은 미래농업으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공주시사와 협력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영농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사는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공사 직원과 시공업체 현장 대리인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합동 안전점검반을 구성해 지속적인 현장 안전관리와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다.

농어촌공사공주시사, 지하수댐·스마트팜 현장 안전점검

✎ 이건용 기자 | ① 승인 2025.10.28 13:33



▲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옥성지하수댐 취수시설 점검. 농어촌공사공주시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지난 27일 충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공주시 우성면 옥성 지하수댐 및 이인면 스마트팜 조성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우성면 옥성 지하수댐을 찾아 운영현황과 지하수 확보량 등을 점검했다. 옥성 지하수댐은 지하수를 저장해 필요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최근 가뭄이 잦아지는 기후 여건 속에서 지역 농업용수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 이인면 스마트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공 현황과 시설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스마트팜 현장은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온도·습도 제어시스템과 자동 관수·관비 시설 등 첨단 설비를 도입했다.

이민수 충남지역본부장은 "옥성 지하수댐은 지역 농업용수 확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이며, 스마트팜은 미래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사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영농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사는 현장 점검뿐만 아니라 매월 공사 직원과 시공업체 현장 대리인이 한자리에 모여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안전보건 협의체와 합동안전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농어촌公 공주시사, 지하수댐 및 스마트팜 현장 안전 점검 실시

이효섭 기자 | 승인 2025.10.28 14:06

지하수댐 관리현황 및 스마트팜 마무리공사 집중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 공주시사가 충남지역본부 합동으로 지하수댐(우성면) 및 스마트팜 조성사업(이인면)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최근 가뭄이 잦아지는 기후 여건 속에서 지역 농업용수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점검하고 스마트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공 현황과 시설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특히 스마트팜 현장은 마무리 공사가 한참 진행 중으로, 온도·습도 제어시스템과 자동 관수·관비 시설 등 첨단 설비를 도입 진행하고 있다.

이민수 충남지역본부장은 “옥성 지하수댐은 지역 농업용수 확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스마트팜은 미래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사는 매월 공사 직원과 시공업체는 한자리에 모여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안전보건 협의체와 합동안전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주=이효섭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지하수댐 및 스마트팜 현장 안전 점검 나서

▲ 김상훈 기자 2025.10.28 13:47

지하수댐 관리현황 및 스마트팜 올해 마무리 공사 집중 점검
 옥성 지하수댐, 농업용수 최대 활용 시설 마무리 작업
 온도·습도 제어시스템 및 자동 관수·관비 시설 등 첨단 설비 확충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관내 지하수댐 및 스마트팜 현장 안전 점검에 이만수 지역본부장의 현장 점검.(사진제공=농촌공사 공주시사)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가 관내 지하수댐 및 스마트팜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선 옥성지하수댐 사후관리 모습.

[충남일보 김상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관내 지하수댐 및 스마트팜 현장들을 돌아 안전 점검에 집중했다.

이번 점검은 27일부터 지하수댐 관리현황 및 스마트팜 등 올해 마무리 공사이다. 충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점검이 실시됐다. 그 첫번째 현장으로는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 지하수댐을 시작으로 이인면 스마트팜 조성사업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이 시행됐다.

우성면 옥성 지하수댐의 경우에는 운영현황과 지하수 확보량 등을 점검하고 여기에 옥성 지하수댐의 지하수 저장율과 필요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최대 시설을 갖춰나간 점검이 마무리됐다.

또한 최근 가뭄이 잦아지는 기후 여건에 따라 지역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위해 온도 및 습도 제어시스템과 자동 관수 및 관비 시설 등 첨단 설비가 모두 갖춰졌다.

이어 이인면의 경우에는 스마트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공 현황과 시설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여기에 스마트팜 현장의 준공에 맞춰 마무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온도·습도 제어시스템과 자동 관수·관비 시설도 마무리됐다.

이만수 충남지역본부장은 "옥성 지하수댐은 지역 농업용수 확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철저한 점검이 추진되도록 나설 방침"이라며 "특히 스마트팜은 미래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앞으로 지사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영농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근 공주시사장은 "앞으로도 현장점검 뿐만 아니라 매월 공사 직원과 시공업체 현장 대리인이 한자리에 모여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여기에 안전보건 협의체와 합동안전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